

# 2000년 1월 1일의 글쓰기와 책읽기

김 훈 | 한국일보 편집위원

기쁨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진실로 기쁜 일이다. 좋은 시집 뒤에 매달려 있는 좋은 해설문은 기쁨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다. 김 현이나 황현산들의 글이 그렇다. 그 글들은 시의 행간을 메워 주거나 행간 사이를 크게 벌려줘서 읽는 사람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 글과 삶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간격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간격을 다시 글로 메워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현실을 오랫동안 강고하게 장악해왔던 책들, 예를 들자면 《자본론》이나 《중의 기원》 《진화론》 《국부론》 《성서》의 뒤에도 시집 뒤에 붙는 것과 같은, 그와 똑같은 문장으로 씌어진 해설이 붙어있으면 좋겠다.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쓰는 글 말이다. 이런 글은 절대로 길어서는 안될 것이고 원고지 20장 정도면 족하다.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술맛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말하듯이, 그렇게 쉽고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본론》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정감록》은 또 무엇이었던가를 웃으면서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자동차 운전을 할 줄 모르지만 《자동차 면허시험 예상문제집》은 즐겨 읽는다. 배 운전할 줄 모르지만 《2급 항해사 자격시험 문제집》도 즐겨 읽는다. 《항공기 조종사 시험문제집》이나

《배관공 자격시험 문제집》도 때때로 읽는다. 서점 매장의 기술서적 코너에 가면 이런 책들이 다 있다. 내가 밤중에 잠 안자고 이런 책들을 읽고 있으면 아내를 나를 가엾게 본다.

이런 책들 속에는 현실을 만져야 하는 인간의 구체적 모습과 동작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 《자동차 면허시험 예상문제집》은 아름다운 책이다. 사람은 남의 신호를 이해해야만 함께 길을 갈 수 있고, 혼자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과 같다는 걸 그 책은 아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는 좁아진다는 사실도 그 책에서 배웠다. 바다에서 삼각파도가 칠 때 인간은 어떻게 이 파도를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2급 항해사 자격시험 문제집》 속에 들어있다. 그 책 속에는 파도에 쓸리는 인간 근육의 힘이 살아있다.

구석기나 신석기 체험이 없는 나는 이런 책이라도 읽어서 내 삶의 빈곤을 좀 메워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아내의 격정대로 매우 불쌍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책들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를 평론으로 좀 말해주기를 바란다. 새천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새천년에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몸의 자연성과 몸의 자유와 몸의 억압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몸이 세상과 직접 맞부딪치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새천년의 책들이 글과 삶의 관계를 직접성의 바탕 위에서 새로 정립하고 글을 삶과 몸 쪽으로 바짝 끌어다 놓아주기를 바란다. 글은 삶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씌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책에 대한 소망은 한없는 것이어서 책이 또한 삶과 글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책이 삶의 구정물에 물들지 않은 기쁨만의 글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러니 인생은 모순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통권 제264호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편집	
	732 - 1433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배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